2011년 4/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8.9% 기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1년 4/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8.9%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
-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9%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2/4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임.
  - 동 성장률은 2011년 1/4분기 9.7%, 2/4분기 9.5%, 3/4분기 9.1%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/4분기에는 8%대로 하락함.
- 중국의 2011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9.2%로 집계돼 2010년 10.4%보다 1.2%p 하락함.

■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, 물가 상승 및 부동산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있음.

- 최대 교역국인 유럽에 대한 수출은 2010년 3/4분기(누적기준)에 전년동기대비 31.8% 증가했으나, 2011년 3/4분기에는 17.4% 증가에 그침.
  - 2010년 2/4분기에 40%를 상회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/4분기에 25.3%로 낮아졌고 4/4분기에는 14.4%까지 떨어짐.
- 2011년 3/4분기 6.3%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긴축 기조에 힘입어 2011년 12월에는 4.1%로 하락함.
  - M2의 증가율은 2/4분기 15.4%에서 3/4분기 13.7%로 하락함.

■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중국경제는 연착륙하겠으나, 2012년 상반기까지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므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8%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
- 중국경제는 산업생산 성장세 둔화, 체감경기 침체 지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경기 둔화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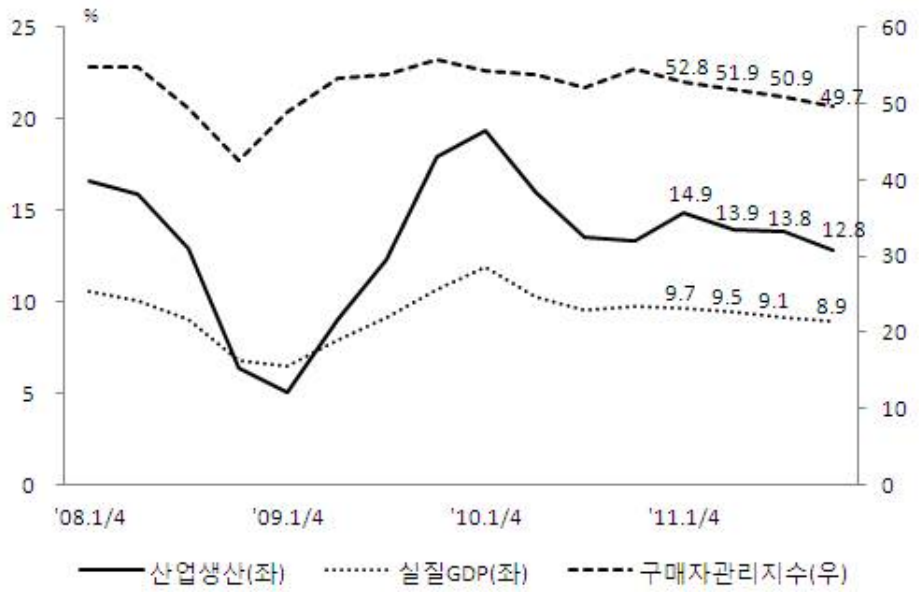
- 2011년 1/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4.9% 증가했던 산업생산은 2011년 11월에는 12.4% 증가에 그침.
- 중국산업정보기술부(MIIT)는 산업발전의 양적 · 질적 균형정책으로 인해 2015년까지 산업생산은 연평균 8%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함,
-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도 2011년 11월에 49.0으로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 기준인 50 이하로 하락함.

● 국제통화기금(IMF)은 중국의 2012~13년 경제성장률은 종전(2011년 9월)보다 각각 0.8%p, 0.7%p 하락한 8.2%, 8.8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
●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여 2012년 상반기 2~3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와 소비진작 정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중국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.

- 중국 정부는 2012년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소비진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큼.

〈그림 1〉 중국의 GDP 및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추이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.

(Financial Times 등 1/17, 1/25)